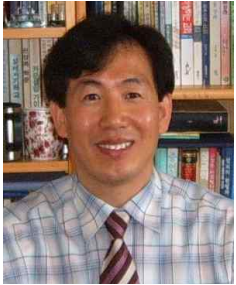




## 박성용 선교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롬 10:13-15)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2020년 새로운 해를 시작한 지가 엿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중보기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많은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선교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3월, 리잘(Rizal) 인근 이주촌 지역에 개척한 SMIC(SEONGEUN MISSION INTERNATIONAL CHURCH) 교회는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와 보내주신 사랑의 섬김을 통해 지난 10월달에 이주민 집을 구입하여 교회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필리핀 정부에서 이주민들을 위해 약 6천여세대(30,000명)를 만든 지역으로 현재는 약 90호 정도가 이주해 와서 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자 집을 구입하는 행정 절차나 교회 공사를 진행하려는 모든 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을 리더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사는 매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3개월가량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현재는 약 95% 진행되었고 1월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회가 완공되면 마을주민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욱 더 복음사역과 교육, 그리고 마을을 섬기는데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입주해 올 6000천 세대를 향한 복음사역과 교육을 위해 건축할 부지 구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학생으로 선발된 6명의 학생들은 주중에 특별히 성경공부와 교육을 통해 교회 리더로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는 저희 집에서 리더 교육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2~3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발해 교회에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새로운 리더를 발굴해서 차후에는 교회의 전체적인 지도자로 세워갈 계획으로 장학생 한명을 케어하려면 매달 기본적으로 최소 5만원~1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후원자들이 필요합니다.

바랑가이 발락박(Brgy. Balagbag)지역은 최근 따알 화산 폭발로 인하여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따알 화산에 인접한 숲속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차로도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우기철에는 4륜 자동차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 발락박(Balagbag)지역의 SMIC 교회는 그곳에 거주하는 리더인 Ninfa가 저와 함께 성경공부와 feeding 사역을 하고 함께 하고 있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4륜 구동의 차를 구입하기 위해 계속 기도했는데...

화산이 터지자마자 리더인 Ninfa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고 필리핀 정부에서는 안전을 위해 발락박(Brgy. Balagbag)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이곳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제가 발락박 인근에 도착하자 화산재와 유황냄새가 너무 심해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사방에 덮인 화산재로 인하여 더 이상 교회까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리더인 Ninfa와 통화가 연결되어 교회학교 아이들과 주민들은 발락박 지역 밖으로 피신할 수 없어 안전한 곳에 숨어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곳 사람들과 교회학교 아이들의 눈망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 미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는 말 밖에...

하루 속히 화산으로 인해 피해가 복구 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사랑과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항상 가족 소식을 접할 때는 마음은 무겁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내인 박미경선교사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2가지 큰 수술(뇌하수체, 갑상선암)을 잘 마쳤고 정기적인 검사를 위해 선교지와 한국을 오고 가야 합니다. 박미경선교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선교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딸(대학생)들은 학업 하는데 건강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올해도 계속해서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기에 앞으로도 주님과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선교사명을 저희들 행복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음 선교소식을 전할 때까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 기도제목

1. SMIC(SEONGEUN MISSION INTERNATIONAL CHURCH)교회에 필요한 성구들이 채워지도록  
(대형 화면TV :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벽걸이용 에어컨, 테이블과 의자등등)
2. 선교사로서 영성과 선교의 문(SMIC)이 활짝 열리도록
3. (영어와 따갈로그어) 잘 습득될 수 있도록
4. 화산으로 인해 폐허가 된 선교지 발락박(Brgy. Balagbag)지역과 SMIC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특히 발락박 지역의 선교용품과 4륜 구동의 자동차가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5. 장학생(리더)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후원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6.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이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 연락처

핸드폰(필리핀) 099-5976-7242, 핸드폰(한국) 010-8749-2739  
 선교후원계좌번호 : 씨티은행 113-15016-268-01, 국민은행 050-24-0266-912  
 박성용/박미경 선교사 올림 (2020년 1월 20일)

■ 사진으로 보는 선교소식들

<발락박-아라우(Brgy, BalagbagAaw)선교지>



<SMIC(SEONGEUN MISSION INTERNATIONAL CHURCH) 공사 및 예배 모습>

